

너무 짧았던 호날두와의 첫 대결

‘손흥민 4분 출전’ 토트넘, 레알마드리드와 1-1 무승부... 원정 승점 추가

손흥민(토트넘)이 유럽축구연맹(UFA) 챔피언스리그에서 비록 4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이 우상으로 여겼던 세계적인 공격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와 맞붙었다.

토트넘의 손흥민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열린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의 2017~2018 UEFA 챔피언스리그 H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1-1로 팽팽한 후반 44분 교체로 투입돼 약 4분을 뛰었다.

정규시간 1분에 추가시간 3분 가량이 다 풀타임을 뒀 호날두와 함께 그라운드를 밟은 건 4분.

손흥민 개인에게 남다른 한 판이었다. 콜모넬로 삼았던 호날두와의 첫 대결이었기 때문이다.

교체 명단에서 시작해 경기 종료 직전에야 투입됐지만 함께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었다.

지난달 14일 도르트문트와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너무 짧은 출전시간 탓에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진 못했다. 추가시간에 한 차례 왼발 슈팅을 시도했지만 수비수 몸에 걸렸다.

호날두는 0-1로 뒤진 전반 43분에 동점골을 터뜨렸다. 이번 대회 5호, 챔피언스리그 통산 110번째 골이었다. 몇 차례 기회를 놓쳤지만 팀의 간판답게 활황했다.

이날 경기는 나란히 2연승을 달린 두 팀의 대결로도 관심을 모았다. 골득실, 다득점까지 같아 우위를 가리지 못했다. 이날도 1-1로 비겼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해와 올해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올라 대회 3연패를 노리고 있는 유럽 최고 클럽이다. 토트넘이 힘난한 마드리드 원정에서 소중한 승점을 추가한 것이다.

토트넘과 레알 마드리드는 나란히 2승1무(승점 7)로 공동 선두다. 다득점(7골)과 골득실(45)까지 같다. 같은 시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독일)와 아폴로FC(키프로스)이 1-1로 비기면서 토트넘의 토너먼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도르트문트와 아폴로는 나란히 1무2패(승점 1)를 기록 중이다.

호날두는 경기 시작 4분 만에 정확한 헤딩슛으로 골포스트를 때리며 토트넘의 골문을 위협했다.

17분에는 개인기에 이은 톱포 빠른 슈팅으로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러나 선제골을 넣은 건 토트넘이다.

전반 28분 서지 오리에가 오른쪽 측

면에서 찰러준 크로스가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수 라파엘 바란의 몸에 맞고 자책골로 이어졌다.

해리 케인이 경합하며 바란의 수비를 방해한 게 주요했다.

위기에서 호날두가 빛났다. 전반 32분 안 베르봉겐의 묵달미를 잡아당겨 옐로카드를 받은 호날두는 전반 43분 토니 크로스가 얻은 페널티킥을 침착하게 동점골로 연결 구경했던 자존심을 살렸다.

전반이 1-1로 끝난 가운데 후반 중반까지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지만 경기 막판 토트넘이 승점 1에 만족하는 수비적인 전술을 꺼내면서 양팀 모두 추가골을 넣지 못했다.

마드리드 원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토트넘은 다음달 2일 안방인 영국 런던의 웬블리 스타디움으로 레알 마드리드를 불러 조별리그 4차전을 치른다.

/뉴시스

뉴욕 양키스 2연승... ALCS '승부 원점'

휴스턴과 2승 2패 동률... '에런저지 이틀 연속 홈런'

뉴욕 양키스가 2연승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뉴욕 양키스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17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4차전에서 6-4로 역전승을 거뒀다.

원정에서 벌어진 2경기를 모두 내주고 홈으로 돌아온 양키스는 3차전에서 8-1로 이긴 데 이어 이날도 승리, 2승 2패로 시리즈 균형을 맞췄다.

인디언스와의 디비전시리즈에서 2패 뒤 3연승을 달려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일군 양키스는 또다시 대역전극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세기 3점포를 때려낸 저지는 7회말 추격의 솔로포를, 8회 동점 적시 2루타를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로 맹타를 휘둘러 양키스 2연승에 앞장섰다.

올해 정규리그에서 무려 52개의 홈런을 때려낸 저지는 디비전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0.050(20타수 1안타) 2타점으로 극심한 부진에 시달렸지만, 챔피언십시리즈 3, 4차전에서 이를 연속 홈런을 때려내며 활약했다.

디비전시리즈에서 보스턴 레드삭스를 3승 1패로 물리치고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챔피언십시리즈 진출을 일군 휴스턴은 1, 2차전을 내리 이기며 상승세를 탔지만, 양키스의 뒷심에 추



뉴욕 양키스의 에런 저지가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브롱스의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린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2017 메이저리그(MLB) 포스트시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시리즈(7전4선승제) 4차전에서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솔로포를 때려내고 있다.

격을 허용했다.

5회까지 이어진 0의 균형을 깨 준 것은 휴스턴이었다.

6회초 선두타자 조지 스프랑어가 볼넷으로 걸어진 뒤 조시 레타이 양키스 포수 오스틴 로마인의 타격방어로

출루해 무사 1, 2루를 만든 휴스턴은 호세 알투베가 볼넷을 골라내 만루 찬스를 잡았다.

카를로스 코레아가 삼진으로 물러났지만 후속타자 율리아에스키 구리엘이 싹쓸이 2루타를 작렬하면서 휴스턴은 3-0 리드를 잡았다.

휴스턴은 7회 1사 후 2루타를 때려낸 미원 곤살레스가 상대 2루수의 실책으로 홈을 밟으면서 1점을 추가, 1점을 더했다.

패색이 짙던 7회말 양키스가 힘을 냈다. 잠들어 있던 양키스 타선을 깨운 것은 '괴물 신인' 에런 저지였다. 에런 저지는 7회 선두타자로 나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솔로포를 작렬했다.

양키스는 디디 그레고리우스의 3루타와 캐리 산체스의 희생플라이를 엮어 1점을 더 만회했다.

양키스 타선은 8회 한층 힘을 냈다. 토드 프레이저의 안타와 체이스 햄틀리의 안타로 무사 2, 3루를 만든 양키스는 브렛 가드너의 땅볼 때 프레이저가 홈을 밟아 3-4로 따라붙었다.

양키스는 이어 타석에 들어선 저지가 2타점 적시 적시 2루타를 작렬해 동점을 만들었다.

그레고리우스의 안타로 1사 1, 3루의 찬스를 이어간 양키스는 산체스가 2타점 중점 적시 2루타를 날려 6-4로 역전했다.

양키스는 9회 아를리스 체프먼을 투입했다. 체프먼은 1이닝을 삼자범퇴로 끝내고 팀 승리를 지켰다.

/뉴시스

정현, 스톡홀름 오픈 2회전 진출

케빈 앤더슨과 맞대결

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1·한국체대·세계랭킹 54위)이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 스톡홀름 오픈 2회전에 진출했다.

정현은 18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103위 마르틴 퍼소비치(25·헝가리)를 2-0(6-3 6-2)으로 제압했다.

정현의 2회전 상대는 올해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US오픈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케빈 앤더슨(31·남아공·세계랭킹 16위)이다.

강서브가 강점인 앤더슨은 US오픈에서 결승까지 올랐지만 라파엘 나달(31·스페인·세계랭킹 1위)에 0-3(3-6 3-6 4-6)으로 져 준우승에 머



물렀다.

이번 대회에 2번 시드를 받고 출전한 앤더슨은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했다.

정현과 앤더슨의 2회전은 19일 벌어진다고 한다.

/뉴시스

전북현대, 진안홍삼축제서 팬사인회

전북현대모터스축구단 선수들은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안 북부마사지산업원에서 개최되는 진안홍삼축제를 위해 선수단 팬사인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인화에는 이동국 선수를 비롯해 전 북을 대표하는 김신욱, 신형민, 이재성, 김진수 선수가 참여한다.

진안군과 전북현대는 첫 리그 우승을 달성했던 2009년부터 지금까지 상생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선수대에 지원되고 있는 진안홍삼은 ACL 우승 등을 일궈낸 선수들의 강한 체력을 만들어준 원동력으로 꼽히며, 진안홍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전북현대에는 휴경기 시 경기장 LED보드 및 전광판을 통해 관중들에게 진안홍삼과 진안홍삼축제 등을 홍보해 주고 있다.

/진안=우태만기자

프로농구 김선형, 발목인대 파열 12주 진단 SK·대표팀 비상

프로농구 서울 SK의 가드 김선형(29)이 심각한 발목 부상으로 최소 12주 이상 코트를 밟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소속팀, 대표팀 모두 비상이다.

김선형의 소속팀 서울 SK는 18일 "전날 부상을 당한 김선형이 오른 발목 외측인대 파열과 종골(복숭아뼈 아래부분) 일부 골절 진단을 받았다"며 "이날 오전 일찍 팀닥터인 강남세브란스 안규현 박사의 집도로 인대접합수술을 마쳤다. 12주의 재활기간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선형은 지난 17일 울산동천체육관에서 열린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의 경기에서 3쿼터 도중 오른 발목을 다쳤다.

쿼터 종료 2분30초를 남기고 속공 득점을 성공한 후 착지 과정에서 오른쪽 발이 전준범(모비스)의 발뒤꿈치에 살짝 걸렸다. 발목이 심하게 꺾였다.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허재 감독도 중 하나인 SK와 대표팀에 악재다.

SK는 이날 경기에서 82-77로 승리하며 2연승으로 산뜻한 시즌 출발을 알렸다. 돌아온 에런 헤인즈에 테리코 화이트, 최준용 최부경 변기훈 등 국가대표급 라인업을 바탕으로 초반에치고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선형의 이탈로 전력 손실이 불가피하다. 김선형은 지난 시즌 평균 15.1점 6어시스트로 프로 데뷔 후 최고 활약을 펼쳤다. 팀내 비중이 절대적이다.

문경은 SK 감독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자유계약 큰맘이 전준범(모비스)의 발뒤꿈치에 살짝 걸렸다. 발목이 심하게 꺾였다.

국가대표팀을 이끄는 허재 감독도 문 감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달부터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예선이 시작된다.

한국은 28일 뉴질랜드 원정을 시작으로 일정에 돌입한다. 28일에는 안방에서 중국을 상대한다.

김선형의 부재는 대표팀 가드진의 무게감을 크게 떨어뜨린다. 김선형은 지난 8월에 열린 아시아컵에서 맹활약하며 한국이 3위에 오르는데 공헌했다.

/뉴시스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